‘중생구제’ 원력으로 민주화 · 인권신장 앞장

창립 30주년 맞은 불교인권위원회

1990년 정각원서 비밀리에 창립
사형제 폐지 운동도 주도하기도
‘不二’ 사상 화두로 전환점 예고
26회 불교인권상은 정상덕 교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까지, 우리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중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불교인권위원회의 30년 역사는 곧 ‘불교인권’의 발전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990년 11월 20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창립했다. ‘불교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불교인권위원회의 창립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한국사회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불교인권위원회 창립주체이자 지난 30년간 구심점으로 활동해 온 진관 스님은 “정각원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고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현수막 한 장 펼친 채 10분 만에 창립 선언을 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며 “거창하지도, 거창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한 1990년은 불교계가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처참히 짓밟혔던 10.27법난이 발생한 지 꼭 10년째 되던 시기였다. 10.27법난 이후 이로 인한 상처를 안은 채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열망을 지켜보던 불교계 인사들은 ‘불교인권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진관 스님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나갔다. 특히 10.27법난은 불교인권위원회가 이후 사회약자들의 권익보호와 인권보장에 앞장서면서도 반민주적, 비인권적 법률개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이 과정에서 진관 스님은 중생구제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활동이 곧 불교인권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신했다. 때문에 불교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했고, 광폭행보로 이어졌다.

불교를 대표해 민주화에 힘을 실었고,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부터 노동권 신장 운동, 평화통일 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집 지어주기 운동까지, 소외된 약자의 인권보호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진관 스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수감 생활 중 사형수와 무연고 수감자들을 만난 경험은, 이후 불교인권위원회의 무연고 사형수 영치금 보내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창립 4년이 지난 1994년엔 불교인권상을 제정했다. 종교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해 활발한 활동으로 인권신장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했고, 소정의 상금과 격려를 전하며 지지와 연대에 마음을 보탰다.

꾸준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정작 위원회 운영은 쉽지 않았다. 활동비는 항상 부족했고 불교인권상 시상식 한번 치르는 것조차 부담이 컸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교인권위원회가 3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조계종, 그리고 스님들이었다. 진관 스님은 “힘든 순간마다 조계종이 의지처가 돼 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 준 스님들도 적지 않았다”며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종단과 스님들에게 처음으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30돌을 맞은 불교인권위원회는 이제 새로운 화두를 품고 미래 30년을 향해 나아간다. 사무총장 범상 스님은 “앞으로의 활동은 불이(不二)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 뿐 아니라 유정무정까지도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불교인권위원회는 기존의 활동에 더해, 비핵화와 환경운동, 인류공존의 不二 사상 확산운동 등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핵전쟁의 위협은 물론 경제전쟁을 비롯한 갈등, 자연파괴와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멈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진관 스님은 “지난 30년간 사회적 이슈에 함께 동참했던 동지와 활동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는 동시에 부족했던 활동에 미안함을 전한다”며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불교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주년 기념행사는 2021년으로 연기됐으며 올해 제26회 불교인권상 수상자에는 정상덕 원불교 교무가 선정됐다.

불교학계 추계 학술대회 ‘봇물’

한국불교학회 20일 학술 대회

학술 발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불교학계가 추계 학술대회를 대거 개최한다. 먼저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가 11월 20일 오후 1시 ‘한암 중원, 조계종 근본을 확립하다’를 주제로 추계특별학술대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인 조계종의 근본을 확립한 한암 중원(1876~1951) 선사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는 △한암의 조계종 종조관 △조계종 창종과 한암의 역할 △조계종의 명칭 대두와 대한불교조계종의 계승 △지눌과 경허의 영향과 한암선의 특징 △한암을 통해 본 간화와 반조의 병진 구조 △삼본사수련소의 시행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한암학술상 시상식’도 열린다.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은 “종래 한국불교의 성격 구명 담론에서는 ‘통합불교’ 또는 ‘종파불교’로 규정해 왔지만 실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규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선학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한국불교가 지닌 강점과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승비문, 묘비명, 유서, 불서, 실록, 관고 등의 관련 사료와 저술들을 총동원하고 총망라하여 이 논제에 대한 집중적 탐구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학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도 ‘불교사상과 대행사상’을 주제로 11월 21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4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11월 14일 동국대 사범대에서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초기불교 다시보기 : 학문적 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선보였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송천)도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11월 14일부터 이틀간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에서 불교학계의 신규 학술지가 눈길을 끈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불교철학〉과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불교사연구〉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신규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조성금교수 本紙 연재물 ‘붓다북학술상’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서
‘위구르 왕국 불교회화’로
중앙꾜불교미술연구 망라



본지서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를 연재 중인 조성금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의 저서 〈실크로드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이하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가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11월 11일 올해의 불서 10종 ·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전문가인 조성금 객원교수의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는 뛰어난 학술저서를 시상하는 ‘붓다북학술상’에 선정됐다.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는 조성금 객원교수의 동국대 박사 논문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를 확장 · 보완한 것으로, 위구르 왕국의 개요부터 미륵 · 관음 등 주요 도상의 전문적 분석까지 위구르 왕국 불화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중앙아시아 미술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교문화 동점(東漸) 과정의 횡적 연계성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불화 도상들을 분류하고 조성 근거가 되는 경전들을 찾아 분석한 두 번째 챕터다. 저자는 투르판 출토 ‘불설예수시왕칠경변상도’, 북정 서대사 ‘미륵상생경변상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베제클릭 20굴 ‘비나야약사변상도’, 베제클릭 18굴 ‘소제재난경변상도’, 교하고성 출토 ‘귀자모도’의 도상을 분석하며 해당 도상들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반으로 동점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는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노승대 著)가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승대덕들 귀한 선서화 한 자리에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후원
‘고승 대덕 선 서화전’ 열려
11월 18~24일 불일미술관


경봉 스님 作, 무진장.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및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을 위하여 창립된 선주회(회장 정상철, 김한란)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일미술관에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후원하기 위한 ‘고승대덕 禪 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고승대덕 선 서화전’에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국내 선지식들의 희귀 선서화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경봉, 청담, 구산, 환경, 추담, 서옹, 석주, 월하 스님 등 대덕 선승들이 생전에 남긴 서화 다수와 송담 스님의 희귀 달마도, 불화부문 주요무형문화재 석정 스님의 일원상 및 범주 스님의 옻칠산수만행도, 보성 스님의 선시, 법흥, 고산, 성파, 수안 스님 등 국내 선승들의 희귀 선서화들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허행, 박행보, 조방원 등 유명 화백들의 산수화와 이돈흥 화백의 반야심경, 김종국 화백의 신선도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아울러 월산스님의 선도자기와 성파 스님의 달항리 등의 도자기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및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을 위해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 선원 수좌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선뜻 많은 작품을 내놓았으며,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의정 스님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송담 스님의 희귀본 달마도 2점을 희사하기도 했다. 선의 경지에서 구현된 물아일치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경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고유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화두참선 정신을 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종립선원 봉암사가 위치한 문경 희양산 자락에 건립 추진 중인 선센터이다. 특히 문경세계명상마을은 한국 선(禪) 전래 1200주년인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 이후 선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 스님은 21세기 문명의 대안으로서 선(禪)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인류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점에서의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서화전을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교류를 통해 선수행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불교의 재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은 “수좌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지원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의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 (1통화, 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 (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